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조코위 대통령 예방...공식발표 임박

-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에 적극 투자해 달라” 요청
- 도요타자동차, 20억 달러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 건설로 견제

현대자동차 28억 달러 투자, 연간 생산량 7만~25만대 규모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7월 25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의 진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시장 진출 검토를 약속하며 “인도네시아는 매우 도전적인 시장이고 시장 진출의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면서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감사 드린다. 시장 진출 검토에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현지 언론들도 정 수석부회장의 조코위 대통령 예방을 속보로 전했다. 산업부 장관인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Airlangga Hartarto)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검토 지역은 바카시, 까라완, 뿌르와까르파 및 수방 근처라고 언급하며,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에 대한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수출입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일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는 “현대자동차는 연간 생산량 70,000~250,000대 규모의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로써 수개월 전부터 다양한 미



<7월 25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동차 시장 진출 검토를 약속하며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에 감사 드린다. 시장 진출 검토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디어 채널을 통해 발표되어 왔던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투자 규모와 공장 건설 부지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약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 의한 부품 공급 업체 통제, 공장 예정 부지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총 28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SUV, 해치백, 세

단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2021년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3,500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의 중요한 요소인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니켈 광석 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생산을 기정사실화했다.

도요타자동차, 인도네시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 건설을 위해 20억 달러 투자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

출이 공식적으로 가시화되고 동시에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인도네시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견제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의 7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향후 4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해 총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테슬라, LG케미칼, 폭스바겐 등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

자동차 메이커들의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면서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

함다니 의원, 주인니 일본 공사에게 한일관계 우려 전달



<인도네시아 국회 제6분과 위원회 함다니(NasDem DPR RI, Hamdhani 가운데)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일본 대사관 Takonai Susumu 공사(왼쪽)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확산 국면에 접어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 나스뎀(Nasdem)당 함다니(Hamdani)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 Susumu Takonai 공사에게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국회 제 6과 위원회에 소속된 함다니 의원은 일본과 한국 갈등에 “양국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스뎀당은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다니 의원은 한국 일본 사이에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6분과위 소속의원은 한국 수출 제한을 반대한다. 따라서

양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함다니 의원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친구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좋은 친구였다. 우리의 입장은 두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야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인니네시아 일본대사관 Susumu Takonai 공사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총선과 대선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나스뎀당에 축하를 전했다. 이에 함다니(Hamdani) 의원은 일본 대사에 감사의 전하며 일본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다양한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리 제조 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러쉬(rush)을 이루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월 19일, 테슬라, LG 케미칼, 폴스바겐 등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는 약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 관련기사 B1면>

2019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예정)업체
2. 신청기간 : 2019.11.30 까지 상시 접수
3.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4. 지원기준 :

지원사업	자문	포장 패키지	바이어특화			
			컨설팅	등록비	검사비	입점비
지원비율	전액지원		농식품 90% 지원 (수산식품 80%)			

-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20건
- * 포장패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억 루피아

5.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현지 자문	법률자문	· 현지법인 설립 관련
	통관·검역	· 현지 통관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 현지 검역 관련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 서류준비(위생허가증 등) 및 작성 검토
	기타	· 식약청(BPOM) 등록 절차 등록진행 절차, 성분 사전확인, 구비서류 등
포장 패키지	디자인비용	· 한국/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패키지 디자인비용
바이어 특화	컨설팅	· MUI 할랄 진행 절차, 할랄 재료 목록, 설비 조건 등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	· 등록비
	검사비	· 수입식품등록(갱신)비 · 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 * 현지자문은 연간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jakarta@at.or.kr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 세정 지원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22일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2일 인도네시아와 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9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을 만나 양국의 세정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의견을 나눴다. 양 국세청은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 6월 '한-인도네시아 국세청 간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회의를 정례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기업 진출국이자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한국 기업의 세정을 적극적으

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팍파한 청장은 10월 자국 개최 예정인 '제9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김 청장은 '한국의 국세 행정 노하우를 나눠달라'는 팍파한 청장의 청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 성실 납세 지원, 전자 세정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고 등 경험도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 및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중과세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한편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정보도 활발하게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0차) 회의를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코위 2기 내각 인선은



그린드라당(Gerindra)과 민주당(Demokrat)이 조코위-마루프 아민 정부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내각 인선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 측근 인사는 "아직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약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에 그린드라당과 민주당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각 인선은 오는 8월 16일 MPR 국민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17일 독립선언일 기념행사 이후에 내각구성에 나설 것

으로 보인다.

내각인선에 앞서 그린드라당은 식량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책, 민주당은 14가지 전략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과 뿌라보위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한 기회의 문을 확대하지만, 뿌라보위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는 경제적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는 7월 24일 자카르타에서 2020~2024 국가 중기 계획 예비 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Bambang Brodjonegoro 장관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5년간 인프라/인적자원 0 순위

국가개발기획부 밤방 장관은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조코위 2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2020-2024, 즉 5년간의 인프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향후 5년 간 인프라는 소규모 산업 지역, 경제 특구, 관광, 농업 및 어업의 연결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인프라 개발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우선 순위로는 인적자원(HR) 개발, 특히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개발이다. 산모와 어린이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접근 문제가 우려된다.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가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문제는 영양실조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 5년동안 24조 214억 루피아 필요

조코위 집권 2기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24조 214억 5000만 루피아 필요하다고 밤방 장관은 발표했다.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2020 ~ 2024년 전국 중기 개발계획(RPJMN)에 따라 7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정부/민간협력(PPP) 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지출, 특별 배분자금(DAK)에서 예측된다고 밝혔다.

국가예산 APBN에 의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은 7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토바호수(Lake Toba), 보로부두르(Borobudur), 만달리카(Mandalika), 라부안 바조(Labuan Bajo), 브로모(Bromo) 및 와카토비(Wakatobi) 관광 지역 완공

둘째, 직업 훈련 교육

셋째, Trans Sumatra Toll Road 건설 및 준공

넷째, 1,000만 가정 식수 연

조코위 집권 2기 국가 개발 계획은?



<지난 5월 9일 Joko Widodo 대통령은 2019년 국가개발계획회의(Musyawah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Muslenbangnas)에서 Bappenas의 Bambang Brodjonegoro 장관으로 부터 2020년 정부작업 계획 초안(RKP)과 2020-2024년 국가 중장기 개발 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RPJMN)을 받았다.>

결 공사

다섯째, 다용도 저장조 pembangunan waduk multiguna 건설

여섯째, 임신 및 발육 장애가 있는 산모 사망률 감소

일곱 번째, 재난 완화

* 2020~2024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

국가개발기획부는 2020-2024년도 7가지 국가 개발 의제를 작성해 각 부처, 기관에 배포시켰다. 이 자리에서 Bambang 장관은 7가지 개발 의제를 설명했다.

첫 번째, 양질의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력 강화

Bambang 장관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운반 능력과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 고용, 수출 및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역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 개발

세 번째, 기본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둔 품질과 경쟁력있는 인적 자원을 개선

예를 들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평준화하고 보편적인 건강 보험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여야 한다. Bambang 장관은 "이것은 사회 보장 구현을 강화하고 어린이, 여성 및 청소년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줄이며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정신 혁명과 문화 발

전

Bambang은 "개인의 성격과 성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사고 방식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경제 개발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여섯 번째,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회복력과 기후 변화를 개선 일곱 번째, 안정성과 공공 서비스의 변화를 강화

* 2020-2024년 3가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

Bambang 장관은 경제 성장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면서 "3가지 시나리오는 경제성장을 54%, 57%, 6.0%"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키우는 열쇠는 교육 향상, 투자 증대, 인적 자원(HR) 개선, 노동 시장 개선이다. 밤방(Bambang) 장관은 향후 5년간 경제 성장은 가계 소비에만 의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2024년에 정부기관에서 7.3%~8%의 투자를 장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기관 및 기관에 규제를 줄이고 관료적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장애물 중 하나는 규제와 비 효율성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Bappenas는 2020-2024년 전 산업 생산 측면의 GDP가 5.3%에서 7.0%로 증가한다고 기술했다.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손실 제한

최근 무역 전쟁은 국가중기계획(Rancangan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RPJMN)에 투자 강화를 통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국가 경제의 외부 요인이다. 국가개발기획부 밤방(Bambang) 장관은 외국인 투자 제한은 수출 지향적인 투자 잠재력의 상실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해를 끼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8%가 손실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장 제한적인 것은 물류, 운송, 건설 및 해양 산업이다. 한편, 국가개발기획부 밤방(Bambang) 장관은 무역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국이 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가계 소비와 투자로 경제 성장에 의존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평균 54%, 그 다음 5.7% 그리고 6.0%의 세 가지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 2020-2024년 투자 목표는 7.3% ~ 8% 증가다. 밤방 장관에 따르면 규제 완화, 세수 강화, 인프라 강화, 인적자원 강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예산 없다"현물 납부방안도 거론

위란토 장관 "분담금 축소 원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 투자·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으며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 연합뉴스 20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일간 콤포스와 안타라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부연했

다. 또 그는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위란토 장관은 "작년 양국 대통령 합의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

난 2015년부터 8조 7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지연시켰고,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창립 13년 무역스쿨 12기 무역생도 배출

인도네시아 한인 차세대의 필수코스가 되고 있는 월드옥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이 올해 12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월드옥타 (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회 (지회장 배응식)에서 주최하는 2019년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1일 자카르타 센츄리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대사관 김창범 대사를 비롯한 박재한 한인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명예회장, 김병삼 KOTRA 관장, 배연자 재인니 자유총연맹회장, 송광중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World-OKTA 자카르타지회가 주최하는 2018년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1일 자카르타 센츄리파크 호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 이강현 코참수석부회장 등 각계 VIP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2018년 재외동포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12기 행사는 World-OKTA 본부에 아

무리 지원없이 자카르타 지부 자체로 2박 3일간 치루어졌다. 특히 배응식 지회장을 비롯한 자카르타 기성회원과 원로의 후원금,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후원금 등으로 이번 차세대 글로벌 무역스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지난 수료식에서 배응식 지회장은 “올해는 자카르타지회 창립 13년으로 12년차 무역스쿨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사와 수료생들의 열정과 좋은 강의에 감사하며, 수료이후 좀더 세심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세대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 무역스쿨 12기 무역생도와 차세대 조직 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빨렘방지회 개소



<빨렘방 지역 OGAN ILIR군의 Pak 일리아스 뱀지알람 군수가 장애인 태권도협회 빨렘방지회장으로 임명되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남부 수마트라 주 빨렘방 지역에 있는 OGAN ILIR군의 Pak 일리아스 뱀지알람 군수가 장애인 태권도협회 빨렘방지회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빨렘방 지회 개소 및 지회장 취임식을 겸한 행사에는 대한 장애인 태권도협회 신현무 회장을 비롯한 송명환 대표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애인 태권도협회 전민식 회장, 배응식 수석부회장, 박성

길 고문, 차현철 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체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보급을 위해 지난 5월 25일 자카르타 중심부에 있는 그랜멜리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장애인태권도회 창단식이 열렸다. 초대회장에는 전민식 전 아시아게임 한국선수단장이 추대되었고, 배응식 수석부회장과 차현철 총무가 임명되었다.

<동포사회부>

인도네시아 농어촌 인프라를 개선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 소개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주재대표 남호성 부장은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를 설명하면서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 건설사업을 한인포스트에게 전하고 있다.2019.7.25>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KRC')는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Fatmawati에 주재사무소(대표 남호성)를 두고 있으며, 1983년부터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에 용역업체 등록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가리안 댐 건설사업 등 총 54개 사업, 754억 원 수주하여 왔다.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의 주된 역할은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코이카(KOICA) 등 농업개발관련 기술용역사업을 발굴 및 수주하고, 농식품부 ODA, 해외농업개발지원 등 정부정책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KR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부자바 반덴주 랑까스비 통 소재 가리안 댐 시공감리사업(총사업비 2,500억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 건설사업(NCICD*)등을 추진하고 있다

* 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t

업은 EDCF자금의 하반기 발주 예정인 댐-하천엔지니어링 사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ject) 9개 중 2~3개 사업을 수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관개시설 개선사업도 수주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발굴 및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KRC 인도네시아 주재대표 남호성부장은 “인도네시아는 KRC가 1976년 진출 이래 댐, 관개, 습지개발, 홍수조절 등 오랫동안 농업인프라관련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이고, 현재까지 54개 사업에 참여,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였고, 향후에도 인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발주될 ESP사업, 서부관개시설 개선사업 등도 수주하여 KRC의 높은 기술력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경제부>

KRC의 2019년도 중점수주사

새로운...
맛이 보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TOBAK
KOREAN RESTAURANT

토박

• 새로운 메뉴 •
• 콩나물삼겹살
• 녹차고등어김치조림

Jl. Woltermonginsidi No.30 Jakarta Selatan
예약전화
Tel : 725-1135, 7278-0055, 7280-0753
Fax: 720-3642 HP.0858-1412-5338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edung Perkantoran Pulomas Satu, GD.3 LT.3 R.10
JL. Jend. A. Yani No.2, Jakarta Timur
TEL. 021-475 4547,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7월23일은 어린이날... HIV 에이즈 감염 아동 차별

2018년 어린이 7,960만 명 가운데 감염환자 2,881명

7월 23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 이날을 맞아 HIV와 에이즈에 걸린 유아와 어린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여러 곳에서 HIV와 에이즈 감염 어린이가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 학부모 반대로 HIV와 에이즈 감염 어린이 입학이 거부당한 지역은 중부

자와주 솔로에서 14명, 북부 수마트라주 사모시르군에서 6명이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네시아 유아와 아동 7,960만 명 가운데 HIV와 에이즈에 걸린 아동이 2,881명이라고 밝혔다. 파푸아주에 536명, 동부자와주 421명, 서부자와주 320명, 중부자와주 308명, 자카르타주 304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HIV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감염 환자를 차별대우고 있다고 밝혔다. HIV와 에이즈 감염은 성관계 또는 수혈, 감염 주사기 사용으로 전염되며, 유모의 젖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파푸아주 은두가 지역 여전히 불안상태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안전하지만 파푸아주 은두가(Nduga) 군은 위험하다. 이 지역에서 에기아누스카요가가 이끄는 분리주의자 단체 무장반란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7번에 걸쳐 경찰, 군대, 일반인들이 공격을 받았다.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일반인 23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군인 15명이 사망했다고 콤파스 신문이 지난 7월 22일 보도했다. 이 지역 분리주의자 무장단

체는 독립파푸아조직(OPM)으로서 알려졌다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장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무장단체는 정부가 은두가군(郡)에서 도로와 다리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에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는 PT Istaka Karya사의 근로자들을 공격했다. 독립파푸아조직(OPM) 대변인은 “우리는 트랜스 파푸아 도로가 필요 없다. 우리는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트랜스 파푸아 도로 건설을 중지하도록 계속해서 경찰과 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 천주교 John Jonga 성직자는 지난해 12월 2일 무장조직의 공격으로 현지 주민에게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 굶주림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성지순례에 231.000명 참가

특별 순례자는 152명 일인당 10,000 ~ 13,750달러
일반 순례 비용 69,744,435루피아에 보조금 혜택으로 35,235,600루피아

올해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순례자의 마지막 의식인 희생제, 르바란 하지(Lebaran Haji), 또는 하리라야 코르반 (희생명절)이라고 하는 이슬람 명절은 8월 12일이다. 하지만 종교부와 나흐나톨 올라 (NU) 교파는 이슬람 명절은 시당 이스밋(sidang isbat)에서 하루 전날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무하마디아 교파는 달력 그대로 시행한다.

종교부는 지난 7월 6일 성지순

례에 모두 231,000명이 참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순례자들은 400~450명 단위로 항공기로 이동된다. 정부는 231,000명의 순례자 운송을 위해 항공기 513대를 특별 편성했다. 순례자 231,000명 가운데 152명은 특별 순례자이며 이들은 PT Karissa Holiday사에 의해 지난 7월 19일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성지로 출발했다.

일반 순례자 성지 순례비용은 특별 순례자 비용보다 더 싸다. 올해 특별 순례자는 10,000 ~

13,750달러이며, 일반 순례자 비용은 69,744,435루피아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35,235,600루피아가 책정되어 있다.

성지 순례(naik haji)는 무슬림의 5가지 의무에 속한다. 5가지 의무는 첫째, 이슬람 신앙고백 (syahadat), 두 번째, 하루 5번 기도(sholat), 세 번째, 라마단에 금식, 네 번째,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naik haji)이다.

중국 여성 부족으로 인신 매매 중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PA)의 자료를 인용한 7월 11일자 콤파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인신 매매당한 아동은 65명이며, 그 중에 남자 어린이는 16명, 여자 어린이는 49명이다. 2017년에는 남자 어린이 14명, 여자 어린이 44명에 비해 올해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 인신 매매당한 젊은 여성은 177명이며, 2018년에는 158명이다. 이들 인신 매매 아동과 젊은 여성들은 노동자나 참녀로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협회

(SBMI)에 따르면 인신 매매당한 젊은 여성들은 서부 갈리만탄주, 반톤 주, 서부자와 주, 중부자와 주, 자카르타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신 매매는 주로 브로커를 통해 일인당 4억~5억 루피아에 중국인들에게 매매됐다. 피해자들은 여성과 부모에게 1,500~2,500만 루피아를 주면서 3개월~6개월 중국에서 살다가 돈벌어 귀국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전했다.

7월 11일자 콤파스 신문은 인신 매매당한 여성 20명 가운데 10명이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협회

(SBMI)에 신고해서 귀국했는데 대부분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들어났다.

중국은 지난 1979년부터 자식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해 여성보다 더 많다. 중국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인구는 13억 9,000만 명 중에서 남성은 7억 1,130만 명, 여성은 6억 7,870명으로 남성이 3,300만 명이 더 많다. 이에 성흔기 여성이 부족하자 브로커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수입업자, 폐지보다 폐 플라스틱 수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에 재활용을 위한 산업용 폐지 수입을 허용했다. 폐지 수입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재활용협회(ADUPI)에 지정된 10개 회사가 수입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폐지를 수입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와 유독성 쓰레기 반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바탐 바뚜암바르 항구에 65개 컨테이너 가운데 49

개 컨테이너는 폐기물로 가득해 적발되었다. 이에 7월17일자 콤파스 신문은 “쓰레기 수입을 단호하게 감독하라”는 제목으로 고발 기사를 보도했다.

수입허가 재활용품

인도네시아 정부는 쓰레기에 관한 2008-18호 법률 (UU No 18/2008)에 근거로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유독성 쓰레기로 환

경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독성 재활용품 수입은 통상부장관령(2016-5-PER-M-DAG81호, Peraturan Kemendag No 31/M-DAG/PER/5/2016)에 근거하여 수입할 수 있지만 환경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입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폐지와 사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료이다.

코미디언 인기 스타 누농 체포

여성 마약복용 혐의로 지난 7월 19일 남부 자카르타 Tebet 지역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코미디언 누농(nunung)은 1963년 중부자와주 솔로출신으로 프리 렛노 뿌라유다피(Tri Retno Prayudati)라는 실명으로 Trans TV 또는 Net TV에서 ‘Inilah Talk Show’ 프로그램에서 출연하는 인기 스타이다. 코미디언 누농 체포 소식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TV방송,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코미디언 누농은 “20년 전에 마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고, 지난 3월부터 다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코미디언 누농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마약 구입 현장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자택 수색에서 체포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건강 생활 비밀



조코위 대통령은 본인의 모든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건강식품 대신에 병을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자무(jamu, 전통한약제)를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화요일,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의 시그니처인 자무 만드는 방법에 대한 vlog를 공유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무는 강장, 생강, 울금 등이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재료는 얇게 썰어 찜은 다음 뜨거운 물에 잠깐 담근 후, 뜨겁게 달군다.

조코위 대통령은 “약 17~18년 전부터 자무를 마셔왔다”면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고 덧붙였

다.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자무를 마시는 것은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약초 혼합물은 전형적으로 뿌리, 잎 그리고 인도네시아 토종 식물의 꽃을 포함한다.

다양한 종류의 자무는 월경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아이들의 식욕을 증가시키며, 체력을 증가시키고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류혁신을 위한 7개의 허브 항구 개항 임박

루후트 반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조정부 장관은 7개의 국제 허브 항구 및 수출입 물류를 위한 경유 항구의 건설 프로젝트를 즉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후트는 7개의 허브 항구가 개항되면 물류비용이 35~40%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항구 건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입 물자 수송은 더 이상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화물은 7개 항구들 중 하나에 도착하거나 정박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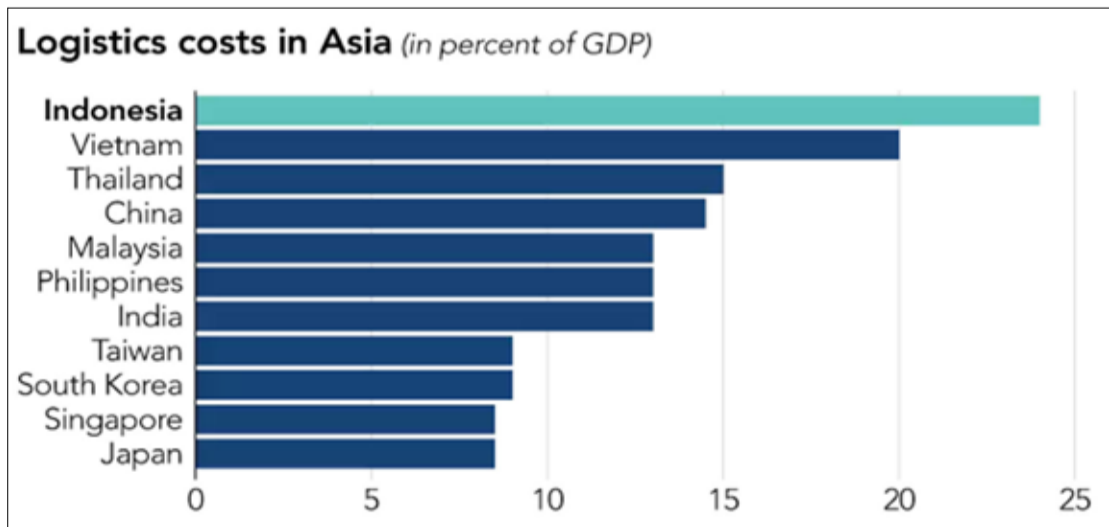
7개 허브는 북 수마트라의 벨라완/꾸알라 판중(Belawan/Kuala Tanjung), 자카르타의 판중 뿌리옥(Tanjung Priok), 서 갈리만탄의 끼징(Kijing), 동



자바의 판중 빠락(Perak), 남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sar), 북 술라웨시의 비퐁(Bitung), 그리고 서 파푸아의 소롱(Sorong) 등이다.

국제 거점들은 국내 항로와 통합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 항구에서 허브로 물건을 싣는 선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루후트는 7개의 허브 항구의 건설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곧 교통부와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등 다른 부처와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비용 효율성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국가 프로젝트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농씨한방병원

"교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진료를 실시합니다."

새로운 장소(간다리아 부근)로 이전했습니다.

***진료과목**
급만성통증(요통,전통,두통,무릎통증)
각종 내과질환(소화기,호흡기 전문)
심장병,중풍 클리닉
소아성장,수험생 클리닉
부인과 클리닉(갱년기 증후군,생리불순,불임)
면역강화 프로그램(찾은감기,설사,만성피로)



평 일 - 9:30 ~ 6:00 (목요일은 12:00까지)
토요일 - 9:30 ~ 3:00
일요일 - 오후 1:00 ~ 5:00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원장 최정(한의사 면허번호 12721)**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석사
대한 한의학회 방제학회 회원
대한 한의학회 면역약침학회 회원

네이버 밴드에서 '신농씨 한방병원'을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건강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Jl. Sultan Iskandar Muda No.60 (아리따움 치과 1층)
전화번호 : 021-725-1801 081-2224-1075(한방치료)

<기획>

인도네시아 소매업 시장의 大변화

- Hero, Giant, Hypermart 등 대형 소매점 줄줄이 폐점
- 알파마트와 인도마렛 등 소형 소매점 성장 가속화

인도네시아의 소매 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유통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앞다투어 진입하고 있어 한인포스트는 소매업 시장변화를 기획해 봤다.

지난7월 말 Katadata에 따르면, PT Hero Supermarket Tbk (HERO)는 6 개의 Giant 매장을 폐쇄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소매점들의 엄청난 할인 혜택에 대한 판매 수익 감소와 운영비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고객의 쇼핑 습관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Fitch Ratings는 “소량 구매에 대한 고객 선호도의 변화는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하이퍼 마켓과 슈퍼마켓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HERO는 최소한 26 개의 Hero 슈퍼마켓 매장을 폐쇄한 후, 32 개의 소매점을 폐쇄했다. 사실 HERO 산하의 소매점 폐쇄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 년 Hero가 소유한 매장은 총 445개로, Giant Ekspress 82 개, Giant Ekstra 57개, Giant Mart 3개, Hero 32개, Guardian 270개, 그리고 IKEA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449개의 매장을 보유했던 2017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2015년에는 HERO 매장 수가 610개에 달했을 만큼 성장해왔었다.

HERO의 경쟁자인, 리보그룹 산하의 PT Matahari Putra Prima Tbk(MPPA)의 소매 전문 브랜드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몇 년 동안 MPPA 매장



수도 줄었다. 2018년 MPPA 매장 수는 총 219개로 Hypermart 매장 107개, Foodmart 24개, Boston 74개, Foodmart Xpress 12개, 그리고 Smartclub 2개로 구성되었다. 이 수치는 2017년 259개, 2016년 299개에 비해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MPPA는 80 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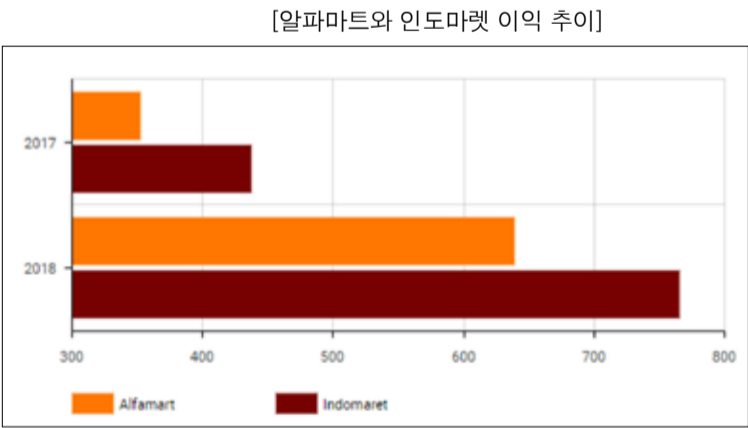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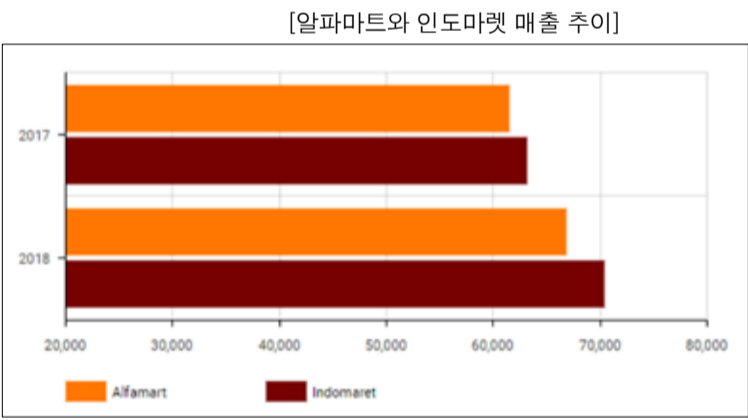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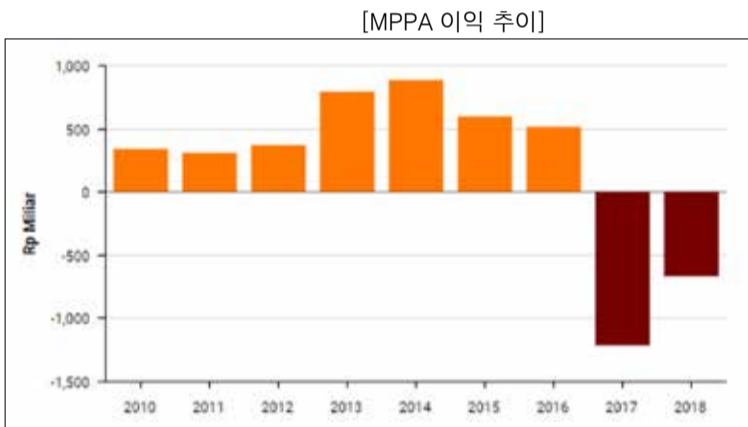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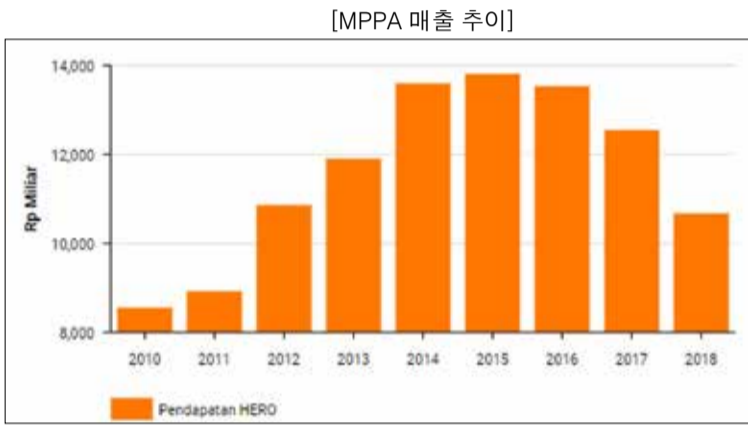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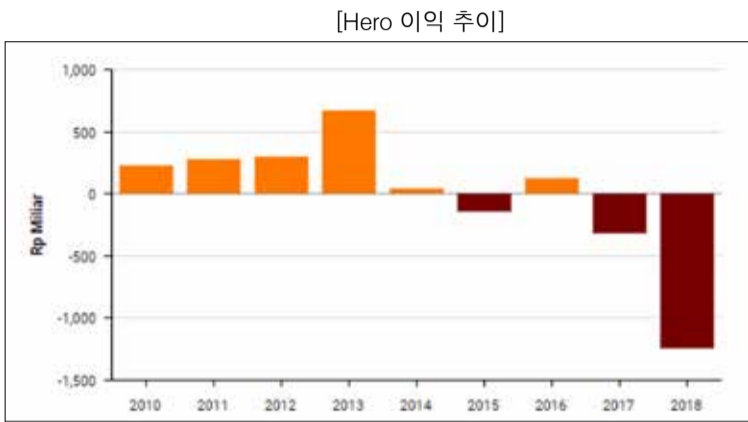
알파마트(Alfamart), 알파미디(Alfamidi), Lawson을 소유하고 있는 PT Sumber Alfaria Trijaya Tbk, Alfamart, Alfamidi는 2018년 현재, 2017년 13,745개에서 9.3% 증가한 15,028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PT. Indomarco Prismatama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마렛 (Indomaret)은 2018년 총 16,366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15,335개였던 2017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소규모 소매점이 확산되

는 현상은 대형 소매점의 폐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속되는 적자에 허덕이는 대형 소매점

대형 소매점 폐쇄는 매출과 이익의 감소하라는 직접적인 원인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HERO는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두 자리 수의 매출 성장률로 2015년에 최고점인 14조 3500억 루피아를 달성한 이후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10.6%가 감소한 12조 97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에 동시에 Hero의 이익 또한 감소되었는데, 2018년에는 1조 25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 이후 가장 큰 손실이다. Hero는 2013년 671억 루피아로 최고의 이익을 달성했으나, 그 이후로 이익의



억 루피아)과 5억3,300억 루피아의 임대 비용으로써 총 비용의 48 %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Hero와 유사한 현상이 Hypermart 그룹 (MPPA)에도 발생되었다. 이 회사의 매출은 2년 전부터 감소했으며, 2018년에 최저 수준인 10조 7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4.9% 감소한 것이다.

MPPA는 2016년 5천110억 루피아의 이익 달성을 마지막으로 2017년에 1조 2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2018에는 6천 697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약을 시작한 소형 소매점 반면, 소규모 소매점을 보유한 다른 두 업체, 즉 Alfamart와 Indomaret은 매출과 이익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Alfamart Group은 66조 8,173억 루피아의 매출을 기록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61조 4000억 루피아에 비해 8.7% 성장한 규모이다.

Alfamart는 2018년에 6,380억 루피아의 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80%의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1%대의 낮은 이익률은 대형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임대 비용, 전력 및 물 등과 같은 높은 운영 비용 때문이다.

한편, Indomaret은 2018년 70조 3,765억 루피아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익은 총 7,658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소매 사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은 대형 소매점의 폐쇄 현상은 단순히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산의 결과가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 및 라이프 스타일 패턴의 변화, 온라인 소매업의 확산 또는 각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 소형 소매점(편의점)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Alfamart와 Indomaret는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며 대형 소매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로 단기간에 점포 수를 빠르게 늘려 고객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Alfamart와 Indomaret의 이러한 전략은 내수 침체가 지속되어 온 상황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소비자들은 불경기로 인해 대형 점포에서 한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소형 소매점(편의점)에서의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소매 사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경기 침체를 지나 소매 판매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FocusEconomics Consensus는 인도네시아의 민간 소비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5.2%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대학 연구실적이 적어 국제 경쟁에서 뒤져

세계에 있는 우수한 대학교 1,000개 중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은 9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100대 순위에는 들지 못했다.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내는 296위, 족자 가자마다대학교는 320위, 반둥공과대학은 331위에 링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교 수준이 낮다. 인도네시아의 대학교는 뒤쳐져 있다.

세계 1000대 우수 대학교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9개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100대 대학에는 전무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대학교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1000대 대학 가운데 인도네시아 9개 대학교

Rank	University
1	1. 인도네시아국립대학 UI
2	2. 가자마다대학교 UGM
3	3. 반둥공과 대학 ITB
4	4. 보고르농업연구소 IPB
5	5. 수라바야 아일랑가 대학교 UNAIR
6	6. 보고르 빠자자란 대학교
7	7. 자카르타 비나누산따라대학교 Universitas BINUS
8	8. 스마랑 디보네고로 대학교 UNDIIP
9	9. 수라바야 스톨루노렘버르공과대학 ITS

PERINGKAT DUNIA

Rank	Count
296위	1
320위	1
331위	1
601-650	1
651-700	1
751-800	1
801-1000	1

인도네시아의 대학교 세계10개 대학교의 평균 점수와 비교

항목	인도네시아	세계
교수 연구품질 5년간 인용논문 (Scopus)	31.7	99.4
교수와 학생비율	2.4	88.3
졸업생 전망	38.8	97.8
유학생 비율	36.9	97
국제 교수 비율	3	88.6
	45	95.5
총	33.4	96.5

인도네시아의 대학교 당면 문제

- 연구예산 부족
- 연구적용 및 혁신 부족
- 분야간 협력 부족
- 대학간 협력 부족
- 이론이 실천보다 더 많아

단, 한권이라도 3일내에 보내드립니다

- 각종 도서 출판물 수입 공급 안해
- 주간지 월간지
- 각종 단행본 도서물
- 각종 인쇄 출판물
- 교재 및 학습지

정식통관 세금 100% 지불하면 더 싸고 빠릅니다.

출판물 신문 특송업체
TIGA BINTANG JAYA
021-4586-9198, 08121004999

<2019 창원 케이팝월드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

〈2019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개최하는 K-Food Fair와 연계하여 오는 7월 28일 18시부터 센트럴파크 쇼핑몰 야외홀에서 열린다.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인 외교부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K-Pop 축제 '2019 케이팝 창원 월드페스티벌'은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매년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올해는 온라인 예선전(총314팀)을 거쳐 최종 선발된 22개팀(댄스 13팀, 보컬 9팀)의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케이팝스타 시즌2에서 유명세를 탔던 가수 매케이(Mackey)의 축하무대와 심사로 그 열기를 더한다.

인도네시아 지역예선전 우승자는 심사를 통해 10월에 창원 KBS홀에서 열리는 본선 출전 자격여부가 확정 될 예정이다.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7월 28일 18:00
- 장소 : 센트럴 파크, 자카르타 (Central Park, Jakarta)
- 주최 : KBS, 외교부
- 주관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 후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Space #, 카카오톡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 열어
전문가로부터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KSIC)은 지난 일요일(7/7)에 세종문화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세종학당에 다니는 수강생 이외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종학당재단의 대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거점 세종학당은 2017년 이래 매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강식에는 본 과정에 참가하는 40여 명의 수강생 전원이 참석하여, 세종문화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날 개강식에 온 수강생들은 세종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할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자신이 배우고 싶은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 함께 한국 대표 음식으로 차려진 한식을 즐겼다. 아카데미 첫 수업은 '영화와 드라마'로 시작하였다.

이 수업은 웹드라마인 "이상한 나라의 특별식사"에 나오는



장면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 기능을 활용한 촬영 기법(배경정리, 아웃포커스, 그리드, 화면 사이즈) 등을 알려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세종문화아카데미는 '영화와 드라마' 수업(7/7)을 시작으로, 케이팝 댄스(7/13(토)~15(월)), 탈춤(7/20(토)~22(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접하기 어려운 '태권' (7/27(토)~29(월))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파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강사진은 자카르타 국립 69번 중학교를 찾아 특별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올해 세종문화아카데미는 8월 3일(토)에 수강생들이 그 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함께 확인하고 즐기면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K POP 앨범 구입은 한인포스트 SHOP에서

- * 가수 대형 포스터 택일
- * 최저가 25만~35만/개당

연락처 : 021-45869198 카톡아이디 haninpost

GLOBAL
LOGISTICS
PROVIDER

We provide the optimum solution and customized service with smart logistics system.

Global Logistics Provider

PT. KGL Indonesia

The Prime Office Suite TWR L7 Suite 7A

Jl. Yos Sudarso Kav. 30, Sunter

Jakarta utara, Indonesia 14350

Tel. +62-21-2265-4188

Email : korean@kglijkt.com

http://www.kglnetwork.com

인도 덴탈 센터 전문치과병원 INDO DENTAL CENTER



치과의사 정혜정

- 숙명여자대학교 졸업
- 프리삭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쉼도잉
- 뉴욕대학교 치과대학 신경치료 연수

DRG. Jung Hye Jung(Helen Jung)

예약전화 : 021-2751-3777



info@indodentalcenter.com
Jalan Wolter Monginsidi No. 97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구 한강 레스토랑 옆, 하나은행 건너편)

[이선진 칼럼]

미중 무역전쟁과 아세안의 대응

최근 동남아 언론에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전환’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생산 분업체제에 대해 미국이 수출시장을 제공하는 이제까지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이 이미 상징적 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세안과 한국경제는 이 구조를 토대로 한 성장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실제 아세안의 최대 교역상대는 중국이고 미국은 세 번째이며, 대 중국 교역의 50%가 중간재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역뿐 아니라 기술 군사 이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화웨이 제재의 예와 같이 두 대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과 한국경제는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방향은 어떠한가? 아세안 사람들의 견은 내부적 능력배양과 지역협력·지역연계(regional connectivity) 두 가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동전의 앞뒤와 같이 분리될 수 없다. 능력배양의 상당부분이 지역협력과 지역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외부 충격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개별 국가들은 독자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경제통합을 가속화했다. 구체적인 공동 과제를 설정한 후 협력하면서도 때론 경쟁(peer pressure)해왔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 압박 시대
그 결과 아세안 10개국은 상

호 비자 면제정책을 정착하고 수출망을 확대해 인적, 물적(교역), 투자 교류를 크게 늘렸으며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발족했다. 6억3000만 명 인구, 약 3조 달러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5위 경제권으로 도약했다.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었다.

또한 아세안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했다. 한·중·일과의 협력(ASEAN+3), 주요 동아시아 경제를 망라한 자유무역협정(RCEP), 동아시아 금융협력(CMIM) 등 그 예는 많다. 개별적으로도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CPTPP)에 참여하거나 일본 미국 EU 등 경제대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의 최대 무역상대는 중국이지만 최대 투자(FDI) 공여국은 EU 일본 미국이다. 이와 같이 아세안은 다양한 지역협력과 연계를 통해 경제의 다변화, 활성화와 능력 배양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 중 베트남이 독자적 능력배양과 지역 연계 면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167억 달러의 외국투자(FDI)를 접수, 작년 동기 보다 70%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베트남은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베-미 무역협정, 베-EU FTA 및 CPTPP에 참가해 개혁 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을 이탈한 중국기업과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현재(1억 인구와 높은 성장률)와 장래를 보고 대거 이주해 온 것이다. 2018년 중국 AMCH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중국을 이탈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협력외교로 위기 극복해야
한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패



글.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러다임의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지역협력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냉전 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 지역에 지역협력 외교가 활발해졌다.

한국도 당시 경제 위기와 북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역협력을 적극 활용했다. 주변지역과 협력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금융의 안정화를 시도했으며, 북한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중시의 양자외교(bilateralism)로 회귀했고, 우리 경제와 외교는 결과적으로 축소지향형이 되었다.

반면, 아세안은 1997년 이후에도 지역협력 외교를 활성화했다. 1997년 한국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10 개국을 합한 것보다 많았으나 지금은 아세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아세안은 요즘 미중 경쟁과 기업의 중국이탈 추세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자는 의견마저 제시하고 있다.

미중 경쟁 속에서 오늘날 한국은 주변대국 중심 외교와 양자외교가 가져 온 패배를 목격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모두 지역협력외교가 중시되어야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내일신문>

홍승수의 인도네시아 IT 칼럼(12)

2019년 10가지 IT 키워드(2)

1. 4차산업혁명
2.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
3. 스마트 팩토리
4. 스마트 팩토리 구축전략
5. 봉제 의류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6. 신발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7.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술

- 동향
8. 인도네시아 핀테크(Fintech) 동향
 9.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10. 디지털 미니멀리즘
 11. 2019년 10가지 IT 키워드(1)



글. 홍승수/
PT. KOREA TELECOM INDONESIA
대표이사
한인포스트 IT 칼럼리스트
sshong.kti@gmail.com

이번 연재에서는 앞서 소개한 2019년의 IT산업에서 뜨겁게 화자되는 용어들을 전면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한다.

1. Microservices / Microservice Architecture (마이크로서비스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IT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이다. 하지만 IT산업에 종사를 하고 특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운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변경과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키텍처를 말한다. 과거 하나의 서비스를 위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시절에서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복잡해지고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 기술이 좀더 진보하여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REST API의 일반화, 도커(Docker)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발전, 모바일 서비스의 일반화 등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의 배경이 되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도가 증가할 수록 여러가지 장점을 갖는다. 우선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하고 그 변경이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개별 서비스 단위의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배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부하가 집중되는 특정 서비스를 위해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 아웃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메모리 사용이 많은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계산 과정이 많아서 CPU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가 있을 경우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자원을 할당하여 스케일 아웃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2. Quantum Computing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은 0, 1, 그리고 0과 1의 조합을 동시에 나타내고 저장할 수 있는 양자 비트(quantum bits), 또는 큐비트(qubit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러한 두 상태의 중첩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자 컴퓨터는 바이너리 비트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만 저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컴퓨팅보다 훨씬 더 데이터 처리의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컴퓨터는 0이나 1로 비트를 수집한다. 그러나 양자 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의 단위와 MP3 파일 저장 용량				
단위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하위 단위 환산	10 ³ 바	1024바	1024KB	1024KB
바이트 환산	2 ⁸	2 ¹⁰	2 ²⁰	2 ³⁰
MP3파일 저장 가능	—	—	0.25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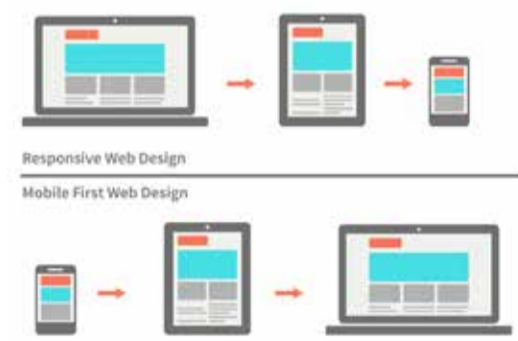
TB	PB	EB	ZB	YB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1024GB	1024TB	1024PB	1024EB	1024ZB
2 ⁴⁰	2 ⁴⁸	2 ⁵⁶	2 ⁶⁴	2 ⁷²
262144	262144000	274877906944	281475000000000	2838600000000000000

출처: IBM, Intel, Microsoft, Oracle, SAP, etc.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2개의 양자 비트, 즉 큐비트(Qubit)는 4개의 별개 상태(distinct states)를 유지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3개의 큐비트는 8개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10개 큐비트는 1,024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이 과거 트랜지스터의 개발로 탄생된 디지털 산업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술로 손꼽는다. 구글, IBM, INTEL 등 IT 선도기업들은 이미 양자 컴퓨팅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의 우수성은 특히 오늘날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50큐비트에 이르면 속도가 가능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자보다 적은 양자 컴퓨팅의 세계가 열리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자와 전자소자가 안정적으로 연산을 실행하는 상태인 '양자 결맞음(Quantum Coherence)'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열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절대 영도(섭씨 -273.16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초전도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다.

3. Mobile First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는 용어는 전문 IT용어는 아니지만 현재 기술의 발전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단어이다. 과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서비스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웹서비스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웹서비스 업체, 온라인 정보제공 업체들은 우선 모바일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플리케이션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채택근무나 대외활동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 졌기 때문이다.

4. Zettabyte Era (제타바이트 시대)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타바이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스코는 2021년까지 매년 글로벌 IP트래픽이 연간 3.3 ZB(제타바이트), 즉 월 278 EB(엑사바이트)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데 과연 제타바이트는 얼마나 큰 숫자일까? 제타바이트(Zettabyte)는 1,000,000,000,000,000,000,000 바이트로 구성된다.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초과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들은 좀더 빠른 데이터 전송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5.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 운영을 능률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라 부르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법을 찾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은 RPA를 통해, 판매 박힌 일상적인 규칙 기반의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고객 서비스 등 더 가치가 높은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RPA기술은 반복적이고 평범한 작업을 로봇이 하게 해 조직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의미이다.

RPA는 사람이 수행하던 규칙 기반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력(digital workforce)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챗봇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소비자센터를 대신하기도 한다. RPA는 정형화된 데이터 입출력 업무, 데이터 비교 검증 업무 등 규칙 기반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자원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인도네시아, 상반기 무역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인도네시아는 최근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준 '불황형 흑자'는 아니지만 수출과 생산 감소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줄어든 만큼 경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올해 상반기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57%, 7.63% 감소했다”며 “특히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기간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6.15% 줄어 각각 617억, 131억6000만 달러 기록했고, 소비재 수입은 9.31% 감소한 74억 달러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25억 19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뒤 지난 5월(2억4550만 달러)과 6월(1억9600만 달러)에는 무



역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흑자'는 절대 반가운 소식 아니라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비드 사무엘 뱅크 센트럴 아시아(BCA)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5월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출과 경제활동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원자재 수입이 감소했다”며 “무역흑자는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수출 감소로 인한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는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무엘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상품 수출 의존

도가 높아 만약 수출과 생산이 활발하고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를 기록한다면 무역적자를 반드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며 “또한 상품외 서비스나 비시장재 수출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마 유디스티라 아드히네가라 경제금융연구소(Indef)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5%보다 낮았다”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즈)

2019 제주 동남아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 방문

- 추진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3일(수), 방문 상담일 2일(화)
- 파견지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참여기업 :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주)라라,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웰빙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주)송이산업, 유한회사 농업법인 베네허브, 삼다오메기
- 추진성과 요약 : 총 7개 기업 대상 26건 1,262,500달러 상담실적



** 제주도 화장품, 건강식품, 일반식품 유통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T. ANTARA NETWORKS INDONESIA
천상연 대표 (Hp.0812 1479 1535)

삼포르나 아카데미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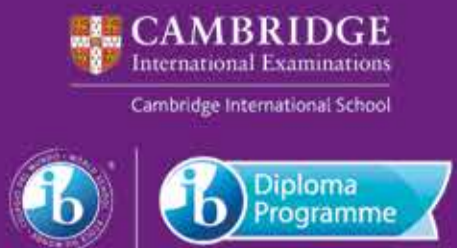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최고의 명문그룹 학교재단
유치원 초중고 시설 및 교육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지도자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교육 시스템
이미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 한국학생들이 재학중



Jakarta Campus	Medan Campus	BSD Campus	Sentul Campus	Surabaya Campus
☎ 0813 3000 3002 sampoerna.academy.jakarta	☎ 0811 6363 331 sampoerna.academy.medan	☎ 0811 9530 032 sampoerna.academy.bsd	☎ 0811 9530 031 sampoerna.academy.sentul	☎ 0858 5917 6832 sampoerna.academy.sby



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교환학생제도 가능
삼포르나 그룹 취업 우선화 고려

<입학문의> "상시입학가능" 한국인 상담환영

TEL : 021)5022- 2234

e-mail : info@sampoernaacademy.sch.id

전기자동차 격전지로 변모하는 인도네시아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단지로 주목 받고 있는 Deltamas와 Cikampek



현대자동차의 공장 위치에 대한 추측은 2018년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규모나 공장 위치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인도네시아 한인들 사이에서는 ‘찌까랑의 델타마스가 유력하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델타마스가 위치해 있는 벵카시의 찌까랑은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계 자동차 회사가 진출해 있어, 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자동차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 공장은 자체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공장 또한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어, 델타마스의 규모로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대형 제조/생산 공장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현지 유력 인사는 한인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델타마스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최근 폭스바겐은 추가 공장 증설을 찌캄벵(Cikampek) 자동차

산업단지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대자동차도 협력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며, 후보 업체들은 위한 부지를 위해 D지역과 C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부 자바 주지사,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한 끈질긴 구매 중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특별경제구역(KEK)이 있는 서부 자바(West Java) 주는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구매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Kompas, Antara, BandungKita 등 인도네시아 유력 언론들은 6월 28일자 보도에서, 서부 자바(West Java)의 Cirebon-Patimban-Kertajati로 이어지는 르바나(Rebana)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특별경제구역(KEK)으로 지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위한 강력한 후보지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BandungKita의 6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드완 까밀(Ridwan Kamil) 서부 자바 주지사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인력개발, 연구, 인턴쉽, 업체 세제 감면”



정부는 지난 7월 9일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에 관한 정부령(2019-45호, PP No 45/2019)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부령은 인력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체육, 그리고 인턴쉽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스리 물리야니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인턴쉽을 제공하는 회사는 200% 소득세 감면, 기술 기반과 혁신 연구를 하는 회사는 300%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정부령은 지난 6월 25일에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Kompas 신문이 7월 10일 보도했다. 스리물리야니 재무부 장관은 “노동집약 산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하면 투자 자본에서 60%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이는 재무부 장관령으로 규정되고 장관령은 신속히 발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정부령을 환영한다.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는 기술분야 투자자, 전기차 투자자 등 많은 투자사들을 유입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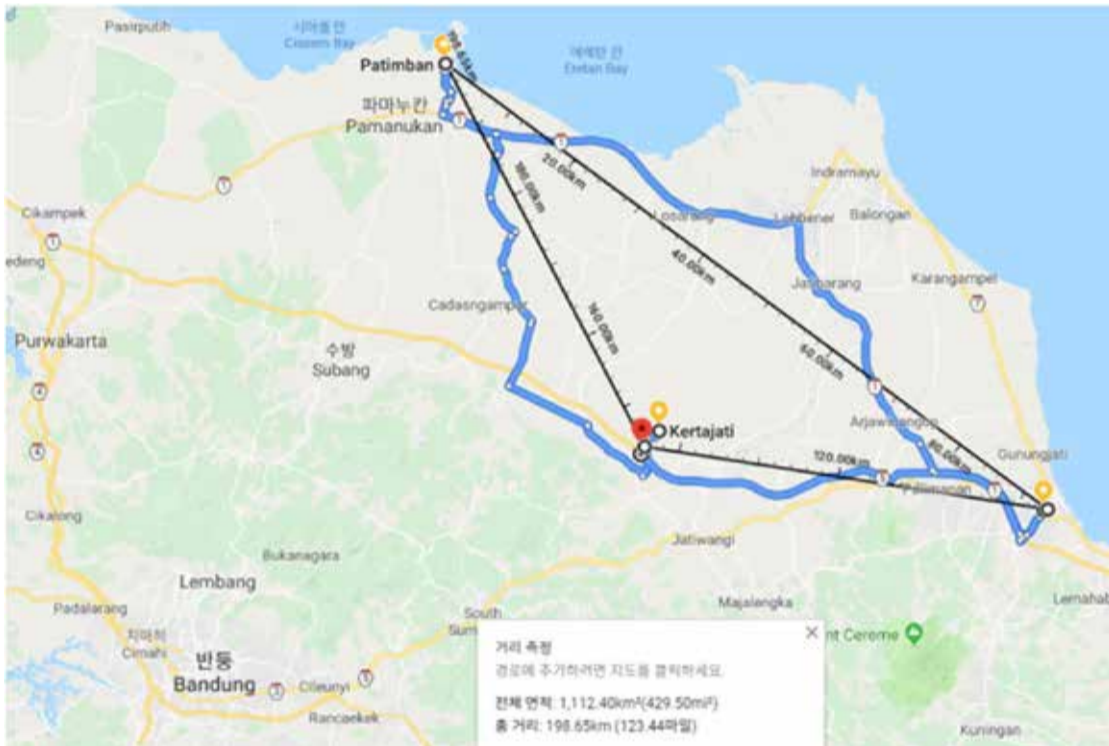
인 우마르 하디(Umar Hadi)는 6월 28일 Pakuan Province West Java Building에서 회동한 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최저 임금이 낮고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한 새로운 특별경제구역(KEK)인 서부 자바의 르바나(Rebana) 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르바나 특별경제구역은 르바나 공항과 빠뎀반 항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 타 지역에 비해 토지 비용, 최저 임금이 낮으며, 수출입 세금 면제, 공장 설립 인허가 간소화 등 수출지향적인 경제특구로써 해외 기업들을 위한 편리하고 완벽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법인세 한시적 면제, 토지 취득 편의 제

공, 완성차(CBU)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이어 PPnBM(Luxury Goods Sales Tax), Tax Holiday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리드완 까밀 서부 자바 주지사는 르바나 특별경제구역의 다양한 장점들을 내세워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구매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르바나 특별경제특구의 경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우려에 대해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며, 현대자동차의 공장은 1년 6개월 후부터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제부 관련기사 A1면에>



www.rlcindonesia.com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보세창고 20년의 역사, **RLC**가 한발 더 나아갑니다

무역 통합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창고 20년 역사의 RLC가 그 동안 축적된 운용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업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보세창고 업무는 물론 해외 및 국내외 물류, 산업 원부자재 구매 및 판매대행, 통관 등 각종 무역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보세창고

무역대행

구매

통관·배송

재고관리

지사업무



zimmoah.com

인니 물류의 대명사
짐모아가 함께 합니다!



WE DELIVER
EVERYTHING, EVERYWHERE!

EXPERT IN TRANSPORTATION

업무통합

ZIMMOAH

RLC

PT. RLC INDONESIA

JL. Jababeka XVII B Block U20
Kawasan Industri Jababeka, Bekasi 17530, Jawa Barat
Tel : (62-21) 8911 1740 (Hunting) Fax : (62-21) 8911 1741
E-mail : rlc@rlc.co.id

담당 : 부장 최기락
MP : +(62) 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식음료(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인도네시아 식음료(Food and Beverage, 이하 F&B)생산자협회는 2018년 F&B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기여도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 지난해 F&B산업의 성장률은 7.91%로 2017년 9.23%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산업 중 기계(949%), 가죽·신발(942%), 기초금속(8.99%), 섬유(8.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한편 F&B산업의 GDP 성장기여도는 2018년 6.25%로 2014년 5.32%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는 올해 관련 투자 확대로 F&B산업의 성장률은 9%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F&B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유치 목표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84조 루피아(48억 달러)
 - F&B생산자협회는 매년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F&B산업 중에서도 F&B제조업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대비 11% 증가한 63조 루피(44억 달러)로 설정
 - F&B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는 4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 또한 산업자원부는 2019년 1분기 F&B산업의 생산량은 6.77% 증가하여 GDP 성장기여도는 6.35%에 달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F&B산업의 9%대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 산업자원부 장관은 앞으로도 F&B산업과 같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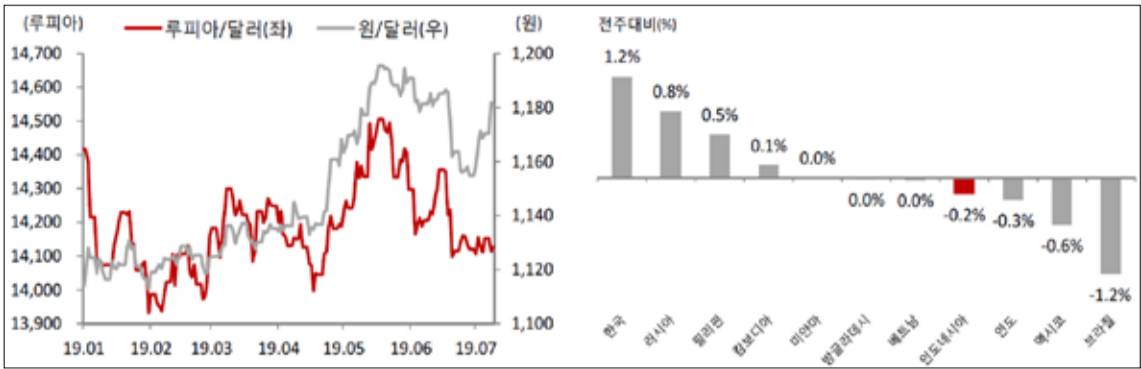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핀테크 스타트업인 Finraya가 올 초부터 개발을 추진한 국영 디지털 결제플랫폼 ‘LinkAja’를 6월 30일 출시
 - Finraya는 인도네시아 1위 국유 통신사업자 Telkomsel의 핀테크 자회사로 국영은행협회(State-Owned Lenders Association)를 포함한 다수의 국영기업들이 출자

- LinkAja는 식음료 소매점을 위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최대 디지털 결제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 Finraya CEO는 F&B 결제는 LinkAja 서비스의 일부로 궁극적으로는 전기·연료 비용납부 등과 같은 Payment Point Online Banking(PPOB)서비스*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PPOB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현된 현금결제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금 인출, 고지서 납부, 송금, 소액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
- 현재 LinkAja는 QR코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스캔하는 방식의 하이패스 요금 결제 서비스도 도입 할 예정이며, 해외근로자 대상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ndiri은행 등 국영은행과 협력 중
- LinkAja는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또한 대도시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과는 달리 시골 지역까지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금융포용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 시장 선두 주자인 고페이(Go-Pay)와 오보(OVO)의 경우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장애가 종종 발생하는 등 이용이 제한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결제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중
 - 2018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시장의 총 거래 규모는 268억 달러로 2023년 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백만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디지털 결제시장 거래규모 전망	26,827.9	32,445.7	38,018.4	42,919.1	46,873.8	50,006.6

창조경제위원회(BEKRAF)를 신설하고, 공공전망의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로드맵 발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정부,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 23%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혼합(Energy-mix) 정책을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 중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2021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으나 파리협정은 159개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는 기후후 체제 합의문
 - 인도네시아는 파리협정 합의 이후 2017년 3월 대통령령을 통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5년 23%, 2050년 31%로 확대하는 신 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발표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도 정부의 목표에 맞춰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어 2025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ESDM은 2025년 수력발전 104%, 지열발전(PLTP)과 기타발전 12.6%로 전체 신 재생에너지 비중 2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신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16,765MW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하원은 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대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준비 중
 -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법안을 검토 중
 - 검토 중인 신 재생에너지 법안은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펀드 조성,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세금 감면,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개발 선택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
 -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하원이 새롭게 구성되는 10월 이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법이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우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입법 전에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기존의 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55% 기록

-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5% 상승
 -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0.68%에서 6월 0.55%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 6월 0.54%를 기록한 이후 6월 물가상승률로는 최저 수준
 - 식료품 가격은 1.63% 상승하였으며 품목별로는 고추, 생선, 채소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닭, 계란 가격은 하락
 - 한편 교통, 통신, 금융 관련 소비자물가는 0.14% 하락
 - 이는 라마단 기간에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에 가계지출이 집중되었기 때문

- 라마단 기간 중에는 하루의 금식 시간이 종료되는 저녁시간에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어 금식기간 중임에도 식료품 매출이 크게 증가

- 도시 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총 82개 도시 중 76개 도시의 물가가 상승
 -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3.6%를 기록한 Manado(자바·수마트라섬 외곽도시)이며, 물가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0.41%를 기록한 Tanjung Pandan(수마트라섬 내부 도시)
 - 한편 통계청은 현재 물가수준이 정부의 관리 목표범위에 있다고 밝힘
 - 6월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은 3.28%로 정부의 물가 관리목표인 전년동기 대비 3.5%~4.5% 범위에 포함

인도네시아-일본간 경제동반자협정 재검토 협상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

- 6월 28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 정상은 경제동반자협정 재검토(General Review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GR-IJEPA)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약속
 -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2007년 8월 경제동반자협정(IJEPA)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협약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옴
 - 2014년 9월 자카르타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래 2019년 3월 도쿄에서 열린 11차 회의까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음
 - 양측은 금번 GR-IJEPA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협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양측 무역협상단 대표에게 조속한 협의안 검토와 수정을 지시
 -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적인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

- 같은 날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무역부 장관들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올해 말까지 의정서 변경을 완료할 것으로 발표
 - 현재 협상안에는 재화와 서비스 교역, 고용, 투자,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기후변화 등이 포함됨
 - 특히 무역조건 외에도 제조업산업개발센터(Manufacturing Industry Development Center, MIDEC) 관련 협력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
 - 양국 장관은 新제조업산업개발센터(New MIDEC)를 통한 산업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등 양국이 상호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

- 한편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Top2 수출국, Top3 수입국으로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교역규모는 수출 1947억 달러, 수입 1797억 달러로 총 374억 달러에 달함
 -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 석탄, 광석 및 구리, 귀금속폐기물, 천연고무 등
 -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반제품 자동차, 인쇄 기계, 철, 백금 등

World Bank,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 World Bank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5.1%로 0.1%p 하향 조정
 - World Bank는 금번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
 -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팜오일과 석탄의 경우, 가격 하락과 동시에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여 인도네시아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

- 한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 요소 해소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내 요인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악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6월 28일 프라보워 총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대선 불복소송이 기각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GDP대비 정부지출은 작년 4.8%에서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의 가계소비는 작년 5.1%와 비슷한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장수지 적자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
 - 인도네시아의 경장수지 적자는 2018년 GDP의 2.8%이며 2020년에는 GDP의 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World Bank는 민간소비 확대가 주도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020년 5.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재무부, 천연자원 수출업체의 수출외환대금 관련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 발표

-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본 유출과 경장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천연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을 자국 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발표
 - 해당 규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수출외환대금을 수출신고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월말까지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정한 외환취급은행의 특별 계좌에 입금해야 함
 - 주요 천연자원 수출품인 광물, 농산물, 수산물, 삼림 자원 등이 포함됨
 - 또한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은 수출 관련 세금납부, 채무상환, 배당금 지급 등 투자법 상 규정된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규제
 - 따라서 수출업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가 있을 경우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이전해야 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출업체가 규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
 - 천연자원 수출업체가 수출외환대금의 자국 내 유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① 수출외환대금을 인도네시아 내 외환취급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출액의 0.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② 특별계좌의 예금을 명시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액의 0.25%를 벌금으로 부과
- ③ 해외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국내은행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수출 시 세관서비스 지연 등의 불이익을 부과
- 재무부에 따르면 부과된 벌금은 비조세 수입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수출업체가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외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힘

Mandiri은행 "불통사태 8시간만에 정상화"

만드리 은행 통화 정상화됐지만 은행잔고 확인해야



20일 오전 8시30분 만드리는 행 가입자에 계좌 잔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CNN Indonesia CNBC 등 언론이 속보로 보도했다. 이후 8시간동안 만드리 가입자들은 mandiri online, internet banking, sms banking, ATM

dan EDC부분에서 정상화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14시 중앙은행 BI는 “Bank Mandiri 은행 계좌 불통사태에 고객들은 패닉할 필요없다”고 진정시켰지만, 각 은행지점에 가입자들은 주말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찾아 계좌 확인하느라 북새통이 되었다.

만드리는은행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만드리 은행 IT 시스템 문제로 만드리 계좌 10%가 문제가 발생했으며 모든 계좌 계정에 대한 자료를 복구했기때문에 잔고문제 없다. 사고는 사기를 찾아 계좌 확인하느라 북새통

전하고 2시간정도 이후에 복구될 예정이다" 발표했다. 한 가입자는 9500백만 루피아가 늘어나 일억루피아가 되었다고 트윗터로 밝혔으며, 또 다른 가입자는 갑자기 잔고가 0가 되었고 3000만 루피아 정도 사라졌다고 항의했다.

제13기 삼익기술학교 졸업...전원 취업 성과

6개월동안 피아노 조율, 기타 목공, 제빵, 봉제 총 4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습득한 삼익기술학교 졸업생들이 전원 취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 7월 11일(목) 보고르 찰름시에 위치한 삼익기술학교(이사장 이병기)에서 제13회 졸업식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삼익기술학교 이병기 이사장을 비롯해 권희정 삼익악기 인니법인장, 이진수 성보유리 회장, 실습업체 관계자, 교직원 등 약 70명이 참석하여 6개월의 노력 끝에 취업하여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성공을 기원하였다.

이 자리에서 삼익기술학교 이병기 이사장은 졸업생들에게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단합하는 정신(Bhinneka Tunggal Ika)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장점을 살려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친절과 밝은 미소, 겸손, 긍정적 생각, 근면과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지난 7월 11일(목) 보고르 찰름시에 위치한 삼익기술학교에서 제13회 졸업식이 열렸다.>

론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장점을 살려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친절과 밝은 미소, 겸손, 긍정적 생각, 근면과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에 졸업하는 13기 학생들은 피아노 조율, 기타 목공, 제빵, 봉제 총 4개 과목의 전문 지식을 삼익기술학교에서 3개월간 이수했다.

학교측은 졸업생 가운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성적과 실습에 성실히 임한 학생 12명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졸업생 Fanny는 “6개월간 무상으로 교육 받아 취업까지 도와준 삼익악기와 삼익기술학교 교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에 나가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어로 답사했다.

한편, 삼익기술학교는 인도네시아 저소득 청소년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KOICA와 삼익악기가 함께 설립하여 개교하여, 지금까지 총 751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멸종 위기의 코모도 섬, 2020년부터 1년간 폐쇄



동 누사 텡가라(The East Nusa Tenggara : NTT) 관광청은 2020년 초부터 1년 동안 코모도 국립공원 내 코모도 섬의 일반인 출입을 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7월 10-11일 라부안 바조(Labuan Bajo)를 방문하여, 보존 구역으로 선포된 코모도 섬의 방문객 수를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동 누사 텡가라 주지사인 빅토르 B. 라이스코다트는 코모도 섬의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1,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모도(Komodo), 빠다르(Padar) 그리고 린짜(Rinca) 등 3개의 큰 섬과 26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국립공원은 1980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대한 도마뱀인 코모도 드래곤(Komodo dragon)을 보

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7년 코모도 국립공원은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12년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New7Wonders of Nature)'으로 지정되었다.

코모도 국립공원과 라부안 바조를 주요 관광지로 하는 관광산업은 NTT 수입의 근간이다.

코모도 국립공원은 2018년 관광객 방문으로 320억 루피아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전년도에 비해 290억 루피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코모도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7만 6830명으로 2017년 11만9599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관광객 중 12만1409명이 외국인이고 인도네시아인이 55만421명이었다.

인도네시아 자연 보호를 위한 800km 여정

뒤로 걸어서 동 자바(East Java)의 도노(Dono)에서 자카르타까지



동 자바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남자는 인도네시아의 삼림 보호를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

해 800km의 대 장정을 시작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Guardia)에 따르면, 4명의 자녀를 둔 43세의 메디 바스토니(Medi Bastoni)라고 알려진 남

자는 지난 주 목요일에 동 자바의 도노(Dono)를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

일에 자카르타의 대통령 궁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8월 17일 자카르타에 도착하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 동 자바의 윌리스(Wilis) 산 주변의 숲을 보존하기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이 윌리스 산 기슭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뒤로 걷는 여정을 위해 배낭에 눈 높이의 백미러를 설치하는 기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는 와룽에서 식사를 하고 사원, 경찰서, 방법초소 등에서 잠을 자

며 하루에 최대 30km를 걸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왜 뒤로 걷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74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국가를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공적을 되돌아 보기 위해.”라고 대답했다.

그는 배낭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를 부착하고, 머리 위에는 황금 독수리와 “조국에 헌정”이라는 뜻의 “Tanda Bakti Anak Negri”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메달아 걸고 있다.



PT. HD FORKLIFT INDONESIA

Hyundai Official Agent



HYUNDAI

MATERIAL HANDLING

www.hyundai-mh.com

25-30

35B-7A



현대 전동지게차 경제형 모델 출시

인도네시아 최초 리튬배터리 판매시작

2톤, 2.5톤, 3톤, 3.5톤 Counter Balance (4휠 타입)

▶ Economic Price : 동급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 High Quality : 현대 기술력의 고품질

▶ Baru Service : 검증된 무상점검 순회서비스 since 2013

▶ 보증기간외 현대지게차 영구 사용시까지 매2개월 마다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Diesel / Gasoline Type
1.5 ~ 2.5ton : 60 Models
Mast Height : Max. 7m



LPB/Gasoline Dual Type
1.5 ~ 7ton : 25 Models
Mast Height : Max. 6m



Battery Reach (Seat Type)
1.4 ~ 2.5ton : 4 Models
Mast Height : Max. 12m



Battery Reach (Stand Type)
1.5 ~ 2.5ton : 7 Models
Mast Height : Max. 7.5m



Battery C/Balance Type
1.6 ~ 5ton : 11 Models
Mast Height : Max. 6m



PT. HD FORKLIFT INDONESIA

Marketing PIC : Ms. Ayu (0812 9597 2720)

After Service PIC : Ms. Siti (0813-3307-7913)

Korean Desk PIC : Mr. Park (0821-2534-3214)

Korea Style Service 프로그램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부품공급 48시간 이내 완료



무상보증기간 1년 또는 1,500시간



납기지연, 부품지연시 무상렌탈



구형지게차 매입서비스

Jl. Raya Kelapa Hibrida Tipe Olive A, Blok GOS No. F 06 Rukan Grand Orchard-Kelapa Gading. ☎ 021-2961-6497, (Mail) : hyundaibagus@gmail.com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 개척단 & 우리컨설팅

‘2019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 개최 안내

2019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이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2019 전남 목포시 수산물 수출 시장개척단’은 구운 김, 돌자반, 조미김, 김밥김, 해초무침, 건조매생이, 아몬드 김스낵 등 5개의 수산물 업체들이 참여하여 현지 기업들과의 수출, 기술제휴 및 업무협력

을 위한 수출 상담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 목포시에서 주최하고 우리컨설팅(PT. Woori Consulting)이 주관하여 수출 상담행사를 일괄 진행한다. 우리컨설팅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상담행사에 참여할 현지업체 및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를 발굴 중이며 업종별 현지 시장조사 및 진행 프로그램과 행

사 후 비즈니스가 성사된 한국 참가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간의 후속 업무 진행관리를 통해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본 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현지기업 및 한인기업은 우리컨설팅으로 문의하면 된다. (trading@woori-consulting.com)

행사개요

◇ 행사일시 : 2019년 8월 22일 (목) 10:00 ~ 17:30

◇ 장 소 : 자카르타 그랜멜리아 호텔 (Hotel Gran Melia Jakarta, Legian 1 (Lobby Floor))

◇ 파견업체 :

참가기업	제품
아사쿠라식품 코리아	구운김
청해 S&F	돌자반, 조미김, 복분자김, 녹차김
한길산업	해초무침
이스턴푸드	조미김, 김밥김, 김스프레드
엠엠푸드	건조매생이, 아몬드 김스낵

◇ 대상업체 : 기술 및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도입하길 희망하는 모든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 (한인업체 포함)

◇ 주 최 : 전남 목포시

◇ 주 관 : 우리컨설팅(PT. Woori Consulting)

◇ 참가신청 및 문의 : 우리컨설팅 무역부 Tel : 0811-8110-640 /021-7918-4239

E-mail : trading@woori-consulting.com

환경부, 산불방지 통제강화

환경부는 건기가 계속되자 산불 방지 통제를 강화했다. 환경 및 입업부 (KLHK) 관계자들은 산불 방지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부 화재

국장은 "각 기관과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산불 방지에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남부 북부 서부 칼리만

탄, 동남부 술라웨시, 북부 수마트라, 리아우 제도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위성으로 본 화재피해 면적은 42,740헥타르에 달한다.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 13% 감소 수출은 증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감소했다. 4월 대선 총선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구매를 지연시키기에 충분한 원인으로 개인 승용차와 기업체 상업용 차량 판매가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자동차 유통 업체 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 (Atra International)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상반기에 유통 업체에 481,577대의 차량만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 (Gaikindo)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자동차 구매는 종종 인도네시아 경제의 절편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가구 소비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토요타 아스트라 모터 (Toyota Astra Motor)의 총책임자인 프란시스코스 소어조프라노토 (Fransiscus Soerjopranoto)는 "일부 소비자는 대통령 총선때문에 구매를 연기했다"며 "7월에 시장이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서 155,139대 판매를 기록하며 다이와츠 (87,023대), 미쓰비시 (80,929대), 혼다 (59,087대), 스즈키 (46,557대), 닛산 (7,176대) 순이었다. Toyota, Daihatsu, Isuzu 및 Peugeot 브랜드를 취급하는 Astra사는 총 253,489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작년 51%에서 53%로 점유율을 높혀 나갔다. 2018년 자동차 판매는 115만대로 올해는 120~13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수 침체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36억 8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34억 4000

만 달러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Gaikindo 회장 인 Yohannes Nangoi는 더 많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출 다변화해서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성장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80개국에 11개의 브랜드 차량과 부품을 수출하고 각 브랜드별로 더 많은 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자동차 산업협회장은 올해 자동차 수출이 적어도 10%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현지 제조업체들이 현재 매년 2백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 수요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졸음운전으로 유류 탱크트럭 충돌 3명 사망

7월 21일(일) 새벽 1시48분 동부 자카르타 라와망은 골프장 인근 고속도로에서 기름을 가득실은 유류탱크 트럭과 소형 승용차가 충돌하여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Jalan Tol Wiyoto Wiyono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으며, 12대 소방차량이 출동되어 새벽부터 오전동안 북부와 동부지역 톨집입을 차단해 큰 혼란을 겪었다. 경찰당국은 이번 사

고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며 충돌하면서 32,000리터 유류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이 차량 연쇄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기 성장 잠재력 5.5% 상향 조정

스리물나니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5.5%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생산과 관련된 잠재적 생산량에 근거 할 때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5.0 ~ 5.5%에 불과하다"고 7월 16일 전했다.

1인당 인도네시아 국민 총생산은 3,840달러다. 인구 통계학 전

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30년간의 노동 연령 인구가 어린이와 노인 의 수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2050년에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선진국 전환을 비교할 때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하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합정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

시아 경제는 연간 6%이상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특히 투자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혁 정책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4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평균 5.18% 성장했다. <경제부>

6월 무역 흑자 전환... 루피아화 강세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인도네시아 수입과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6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7월 15일 발표했다. 지난 달에는 118억 달러를 수출하고 116억 달러를 수입해 2억 달러 흑자를 냈다. 루피아화는 2월 11 일 이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of Indonesia)의 자료에 따르면 루피아화는 미화 대비 0.8% 오른 13,970루피아로 강세를 보였다. 루피아 (Rupiah)화는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린 통화 중 하나이며, 달러 대비 4.2%의 수익을 올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무역 전쟁에서 베트남

과 같은 방식으로 수출 실적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장관들을 질책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무역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2기 임기 동안 관료적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향후 5년 내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숙제는 너무 많다.

상반기 반뜰지역 신발 수출 감소

인도네시아 신발협회 (Indonesia Footwear Association)에 따르면 신발 생산의 주요지역인 반뜰(Banten) 지역에서 제품 출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앙 통계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은 2019년 1월~6월에 신발 수출이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Aprisindo (Asosiasi

Persepatuan Indonesia) 회장인 Budiarto Tjandra는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를 통해 신발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유럽으로 수출이 감소했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Banten의 신발 산업은 축소했다”고 24일 말했다.

신발협회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Tanjung Priok을 통한 신발 수출은 연간 10억 5,500만 달러에서 29.59% 하락한 6억 5,270만 달러를 기록

했다.

하지만, 중부 자바 지역의 신발류 수출액은 연간 1억 2,080만 달러에서 26.35% 늘어난 1억6천403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속됨에 따라 미국으로 신발 수출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은 51억 1천만 달러로 연평균 4.13% 성장했으며, 올해는 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급 아파트 부동산 산업 전망 커

정부가 300억 루피아(30million) 상당 고급주택에 대한 상품 판매세(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BN BM)와 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22)를 면제하는 법규를 발효한 뒤, 부동산 활성화 전망이 커지자 부동산 개발사들이 고급 거주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개발사들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매단 등지에 150억~250억 루피아 상당의 고급형 아파트

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콤파스 신문이 7월 24일 보도했다.

부동산개발사협회 (REI)의 술라이만 수마위나파 회장은 “현재 고객에게 판매세와 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부동산개발사들이 자유롭게 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개발사들은 아파트 사업이 더 발전할 것을 믿고 있다.

Colliers International Indonesia의 자료에 따르면 2019

~ 2022년에 자카르타에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는 16개로, 평방미터당 3,950만~9,000만 루피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아파트가 11.25%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5,005채, 2017년에 15,421채, 2018년 20,128채, 2019년에 20,660채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경제부>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NUSANTARA NEWS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진 연속에 가뭄피해 커

지난 주에는 지진이 많은 주 간이었습니다. 우선 북 말루주 할마헤라 섬 남쪽에 강진이 발생했지만 쓰나미나 지진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발리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리 지진은 5.3 리히터 규모기 때문에 그리 센 지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집과 힌두사원, 학교 등이 무

너져 내렸기 때문에 비교적 지진피해가 컸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해 드렸습니지만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식수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농어촌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칼리만탄 지역에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산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연무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무는 주민들이 산불을 놓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땅 밑에 깔려있는 이탄토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나 연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그린드라당 총재가 국민들 앞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린드라 당과 PDIP당이 정치적으로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나돌기도 했지만, 여론은 그린드라 당과 PKS 당은 예전처럼 선명 야당으로 남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에 착 달라 붙은 당은 PDIP, Golkar, PKB, Hanura, 그리고 Bulan Bintang, Demokrat 당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당은 PAN 당입니다. 한편, 야당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린드라와 PKS 당이 되겠습니다.

Parman, Jalan MT. Haryono, Jalan H.R. Rasuna Said, Jalan D.I. Panjaitan, 그리고 Jalan Ahmad Yani가 되겠습니다. 정말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홀수 차 하나 아니면 짝수 차 하나를 더 사야 맘놓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홀짝제를 적용해도 자카르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적용 지역은 Jalan Medan Merdeka Barat, Jalan M.H. Thamrin, Jalan Jenderal Sudirman, Jalan Gatot Subroto, Jalan Jenderal S.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그린드라 총재 화해

마침내 지난 13일 조코위 대통령과 뿌라보위 그린드라 총재가 MRT 종점인 Lebak Bulus 역에서 만나 두 손을 맞잡고 HI까지 동행했습니다.

현재 소송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 화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급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뿌라보위 총재는 이날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조코위(JKW)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선불복 소송에 대한 대립각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 그는 대선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비판을 이어간 데 대해 사과하

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잡 몇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뿌라보위 총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2019년 대선 정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와 마를아민 부통령 당선자는 보고르 센톨에서 당선자 대화를 갖고 5단계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네시아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한 대립까지 갔던 뿌라보위를 끌어 안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홀짝제(Ganjil Genap) 시간 연장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Ganjil Genap) 시행을 두고 말이 많지만 일단 지난 아시안 게임 때처럼 아침 06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적용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동차만 해당될

니다. 문제는 홀짝제를 적용해도 자카르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적용 지역은 Jalan Medan Merdeka Barat, Jalan M.H. Thamrin, Jalan Jenderal Sudirman, Jalan Gatot Subroto, Jalan Jenderal S.

불법 수입 휴대폰 차단 IMEI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휴대폰이 5,000만 대 유통되고 있으며, 그 중에 20%는 밀수 휴대폰이다. 정부는 휴대폰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IMEI(국제 모바일 장비번호)를 등록하게 했다. 휴대폰의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않은 IMEI 휴대폰은 2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IMEI 규정
정부의 밀수 휴대폰 근절
밀수 휴대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휴대폰의 IMEI를 등록
휴대폰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사용불가

휴대폰 적법성 검사방법



1. *#06#버튼을 누른다. 또는 핸드폰내 SIM 카드 삽입장치에 번호 확인
 2. 확인된 15/16개 숫자를 kemenperin.go.id/imei에 발송
- ✓ 등록된 핸드폰 경우
유통업체, 브랜드, 휴대폰 유형에 관한 자료가 나타난다.
- ✗ 등록되지 않은 핸드폰 경우
휴대폰은 kemenperin(산업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IMEI 등록목적



휴대폰 도난 방지



휴대폰 밀수입 방지



휴대폰 거래시스템 개선

인도네시아 휴대폰 사용자



2019년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3억 5,550만개



매년 5,000만대 휴대폰 유통
20%는 밀수 휴대폰



매년 2~3조 루피아
국가 재정 손실

한인포스트 디자인

한.일 분쟁 심화되면 인도네시아는 유리?

한.일간의 분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인도네시아는 한일 양국으로의 수출길이 추가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는 어부지리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어떨게든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CEPA 협정도 더 빨리 타결될 기미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는 한국도 27억 3천만 불의 교역을 하는 국가지만 일본도 56억 7천만 불을 주고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이 무역분쟁으로 인해 서로 무역을 중단할 경우 그 공백을 인도네시아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이 일본산 섬유제품(Uniqlo) 수입을 거부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그만큼 대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가 두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섬유 이외에도 석탄, 식용유, 천연고무, 목가공품, 자동차 부품 등이

중부자바 개발 본격화

중부자바가 3개의 특별공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베스(Brebes)와 렴방(Rembang), 그리고 꾸부멘(Kebumen)인데요 이미 곤달(Kendal)에는 1천 헥타에 달하는 공단개발을 조성하기로 합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제 봉제공장이나 신발공장들은 이동한지 오래지만 목재와 가구, 대나무와 로판(Rotan) 가구, 섬유, 고무, 종이, 금속산업 등도 중부자바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자바를 선호하는 이유는

2021년부터 인니산 현대자동차

지난 1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는 연산 7만에서 25만대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주

로 백 햇치(Back Hatch) 타입의 SUV 와 MPV와 세단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직원만 3,500명이나 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선 무척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동안 Tax Holiday 문제가

제비집 수출물량 턱없이 부족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비집 물량이 수출 쿼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요량은 많은데 수출 조건을 보면 수출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홍콩이나 베트남으로 수출하

는 제비집 가격은 kg 당 30불에서 55불 정도지만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톤당 700불 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비집 생산량은 아직 70톤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란티나 방역을 해야 한다든지 수출세 16%를 내야 하는 등 수출

꼴라빠 사윗 열매 가격 폭락세

최근 꼴라빠 사윗(Kelapa Sawit) 열매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kg 당 1,000루피아는 나갔는데 요즘은 700루피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3400루피아 정도 들기 때문에 적어도 1500 루피아는 받아야 하지

만 그건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히고 인도마저 수입관세를 올렸어도 중국이 더 많은 물량을 사주겠다고 하여 안심했는데 미.중간 무역전쟁 때문에 대 중국 CPO 수출물량도 크게 줄어 드니까 당연히 꼴라빠 사윗(Kelapa Sawit)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것 같

2040년 아시아, 세계 경제의 50% 이상 차지

매킨지글로벌연구소 ‘아시아의 미래’ 에서 예측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Co)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GI)는 ‘Asia’s future is now’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에는 아시아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2020년에는 아시아 국가 중산층이 30억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의 소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00년까지 아시아는 각 국가별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세계 모든 국가의 총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오는 2040년에는 총 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세계 소비의 40% 가량이 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앞으로 △ 무역·네트워크 △ 기업생태계 △

기술 △소비자 등 4개 영역에서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무역·네트워크 부문과 관련, 아시아가 최근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아시아가 더 이상 세계의 '저가형 생산공장 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기업생태계 측면에서도 지난해 미국 유력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210개가 아시아 기업이었으며, '최상위 성과 기업'(경제적 이익 기준 상위 20%)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기업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등 아시아 산업지형이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7개 신흥 경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지난 50년간(1965~2016년)



글. 한상재/칼럼리스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정부가 허가를 쉽게 처리해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바 트란스(Tans Jawa)와 같은 인프라가 잘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면서 지연되는 가 싶었는데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공장을 짓느냐 하는 것인데요, 짜카람 델타마스(Deltamas) 공단지역 인근에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인도네시아 시골 해변 어디를 가든지 창문이 없는 건물을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제비집 하우스입니다.

제비들이 논이나 밭담가 등에서 고기 등을 잡아다 이 어두운 집 안에 여기저기 집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비집입니다.

습니다. CPO 가격도 2017년 1월 당시만해도 10,229 루피아를 유지했는데 점차 8천 루피아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8년엔 그 이하로 더 떨어져, 2019년 5월 현재 6,358.20루피아까지 하락되어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40년 아시아, 세계 경제의 50% 이상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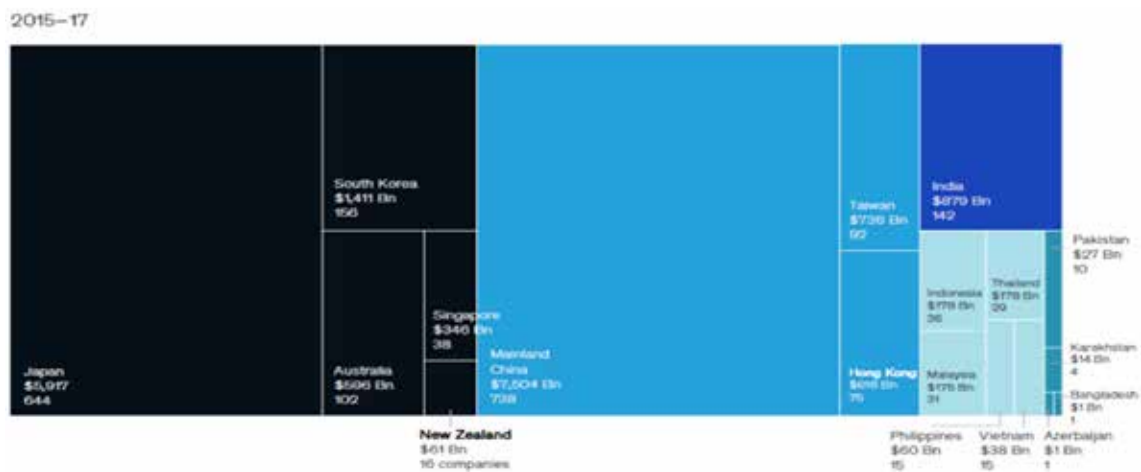
매킨지글로벌연구소 ‘아시아의 미래’ 에서 예측



1인당 경제성장률이 매년 3.5% 이상이고, 미국 성장률을 웃돈 '고성장 신흥국'을 선정한 결과, 한국·중국·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이 모두 아시아 국가였다.

소비 측면에서는 내년 아시아의 중산층이 30억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중산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앞으로 10년간 아시아가 세계 소비 성장분의 절반 정도를 기여할 것으로 맥킨지는 내다봤다.

(기사인용 : 맥킨지 보고서, 디지털타임스)



CERAGEM

세라젬 척추온열마사지로 달라지는 내일!

세계에서 매일 250만여 명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라젬은 세계 70여 개국, 2,500여 개의 대리점을 운영중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매일 250만여 명의 고객분들께서 세라젬 척추온열의료기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젬과 함께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20년 역사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

인체의 중심 척추관리를 위한 척추온열의료기기 개발(1998년)

체험마케팅을 통한 세계 70여개국 네트워크 구축

척추온열의료기기 글로벌 누적판매 250만여대, 업계 1위

상담문의

0811 9593 111

1

금주의 詩

봉승아

빨간 꽃잎으로
소녀의 손톱을 물들일 때는
달이 밝은 밤이다

붉은 꽃 물이
소녀의 가슴에 박힐 때는
하늘의 별들이 모두 나와
반짝이며 지켜 주는 밤이다

별정계 살이 익던 여름
사납던 장맛 비를 맞으며
머리는 장포처럼 자라고
입술은 꽃 잎처럼 붉어져

가을이 오기 전에
별써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준규 시인/
인니문협회원

〈시작노트...〉

어린 시절 동네 여자 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며 놀았던 봉승아의 매력은 다룬데 있다. 봉승아에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젊은 처녀의 원초적 순결미가 있고, 봉승아는 내 젊은 날, 사랑과 야망이 열기로 불타던 한 시절의 짧은 청춘과 닮아 있다. 지난 젊은 날을 돌아 보는 이 시점에도 봉승아를 떠올리면 나에게서 새로운 피가 내 안에서 생성됨을 느낀다. 한 인생에서 청춘의 때와 그 계절 같이 하는 붉은 ‘봉승아’ 독자들과 그 느낌을 나누고 싶었다.

KTI

데이터 센터 구축

CCTV 시스템 설치

화재경보 시스템 설치

IP 방송 시스템 구축

VOIP 시스템 구축

스마트 팩토리?
기업 정보화?
네트워크?

사무용 컴퓨터 / 네트워크 장비

사무용 랩탑, 데스크탑 PC

라벨 프린터 / 바코드 스캐너

정품 소프트웨어

전산 소모품

나에게 필요한 IT Solution 은 무엇일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

응용프로그램 개발

웹사이트 제작

모바일 앱 개발

네트워크 백본 설계 및 구축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PT. KOREA TELECOM INDONESIA

SMART IT SOLUTION PROVIDER

Soho Pancoran Tower Splendor 2101,
Jl. Let. Jend. MT. Haryono Kav. 2-3, Tebet Barat,
Tebet, Jakarta Selatan 12810, DKI Jakarta, Indonesia

0812 8100 5468 / sshong.kti@gmail.com
021 8062 5851 / www.koreatelecom.co.id

정기와
Chung Gi Wa

햄, 소시지, 신선한 야채와 육수,
매콤한 다데기로 한층 칼칼하고 얼큰한

부대찌개

2~3인분 275,000 루피아

라면사리까지 더해져 한끼 식사로 손색없는
청기와 부대찌개! 지금 바로 식당으로 오세요~.

(*) 가격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청기와 상품권 출시!

고마운 마음을 청기와 상품권으로 전해보세요.

상품권 종류 50만 루피아, 100만 루피아

상품권 특징 본 상품권은 청기와, 청기와 데라스,
청기와정육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500,000 VOUCHER

청기와

1,000,000 VOUCHER

청기와



한인포스트 캠페인 "9505 건강한 한인사회를"

사랑의 전화

9505는 95% 한인이 경제적으로 낙오된 5%의 한인들을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인동포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십시일반으로 동포들과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쌀과 라면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sms : (천사 구구구)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0812-1004-999**

126개월째 300여명에게 사랑나눔을

"건강한 한인사회를 위한 우리 동포의 헌신에 감사"

*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쌀 5~20kg, 현미라면, 생활필수용품 1박스/매월
- 기타 - 학자금 및 생활자금
** 배달문의: 0819-3272-4757 신국장

배달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으로 나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2시 ~ 4시 <포장 봉사를 원하시는 분 전화주세요>
* 장소 : 미원 본사 (021-470-4280) * 필요인원 : 10명 (사전예약 0819-3272-4757 신국장)

재외국민 국내 금융활동 간소화... 위임장 실시간 진위확인

외국공관이 증명한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며, 해외 체류 재외국민의 금융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7일 외교부와 금융결제원은 주일본대사관과 주LA 총영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려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14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 발급 기록과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뒤 시스템에 저장된다. 참여 은행은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외교부는 "향후 상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 봉사 교육 신청자 모집

- 내용: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 봉사자 교육

- 일정: 2019년 9월 3일(화)부터 11월 26일(화)까지 12주(오전 9:30~12:00 예정)

: 매주 화요일 강의 13회 + 2, 4주 토요일 4회(총 17회)

: 부득이한 결석시 사전 통지 필수 및 수강생 개별 연구 및 발표로 보충.

- 인원: 헤리티지 밴드 공지 댓글 선착순 15명(8월 31일 접수 마감)

- 장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Jl. Medan Merdeka, 홀짜제 적용 구간) 등

- 자격: 자카르타 및 근교 거주자로서로서, 향후 3년 이상 국립박물관에서 오픈 마인드로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 가능한 분.

- 비용: 헤리티지 회원 가입(연간 70만 루피아(2019년 회비 미정)/1인), 소정의 교재비(실비)와 추가 비용 없음.

● 교육 일정(총 17회: 화요일 13회+토요일 6회중 4회 이상)

- 9월 3일(화), 7일(토), 10일(화), 17일(화), 21일(토), 24일(화)

- 10월 1일(화), 5일(토), 8일(화), 15일(화), 19일(토), 22일(화), 29일(화)

- 11월 2일(토), 5일(화), 12일(화), 16일(토), 19일(화), 26일(화)



Indonesian Heritage Society



화), 17일(화), 21일(토), 24일(화)

- 10월 1일(화), 5일(토), 8일(화), 15일(화), 19일(토), 22일(화), 29일(화)

- 11월 2일(토), 5일(화), 12일(화), 16일(토), 19일(화), 26일(화)

● 인도네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해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문화강좌" 2019년 하반기 회원모집

- 각 강좌는 8월 5일(월), 첫째주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 월요일: 난타아리아 강좌(강사: 원순옥), 오전9시~12시
☆ 현재 수업 중

- 화요일: 미술회화 강좌(강사: 서현옥), 오전9:30~오후3시
☆기초반: 선착순 5명 모집(오전 9:30~12시),

☆8월 6일(화) 개강

- 수요일: 손자수 강좌(강사: 박미경), 오전 9시~오후 2시

☆8월 7일(수) 개강

- 목요일: ☆실용 인니어 강좌 (강사: 조은숙),
오전 9:00~10:30, 16주 과정,
책: 실용 인도네시아어, 보충 프린트물 제공,

☆8월 8일(목) 개강

- 금요일: 기타 강좌(강사: 전준

구) 오전 9:00~10:30

☆8월 9일(금) 개강

- 장소: Ruko Pinangsia Blok H-28 (한인회 사무실)

- 문의 및 신청방법: 1:1 톡 또는 082181666137 (하미숙 사무국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일간지/주간지/월간지 구독 안내

+ 보너스 : 한인포스트. 주요 인니간행물

<자카르타 기준>

격일(월수금) 배달 월 90만 루피아

* 무역부 검찰청 관세청 간행물
당일 통관허가 품목

▶ 일간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전자신문

▶ 주간지 :
주간조선 주간한국 주간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시사저널 시사in

▶ 월간지 :
신동아 월간조선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성조선 여성중앙
우먼센스 과학동아 소년조선 styler 리빙센스.....

원하시는 한국의 모든 일간신문/주간지/학습지를
인도네시아 어디든 배달해 드립니다.

신문사업자 허가업체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CV. Tiga Bintang Jaya

구독문의

HanInPost

한인포스트

문의전화

0812-1004-999

카톡아이디 haninpost

021-4586-9199(대) haninpost@gmail.com

전국 어디서나 뽕뽕터지는 U+LTE

Rp. 40,000/일 (10일 이상)

**한국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무제한으로!**

외근, 출장, 여행등 외부에 있을때
와이파이존 찾아 헤매시나요?

스마트폰 테더링이 불편한 분들
(데이터, 배터리부담)

휴대용 와이파이 무제한 1일
하루 1GB 사용 후 속도제한 [무제한]

동시 10명 접속가능 | 출출한 LTE전국망 | 빠른 LTE 속도

국내에 여행 또는 출장 온 외국인

이동업무가 잦은 직원이 많은 기업체

HanInPost
한인포스트
Service Center
+62 813 1999 9114
+62 812 1004 999(한국인)
+62 21 4586 9199
(WiFi-013) Available WhatsApp, KakaoTalk & Line

“침대가 아니고 복덩이네~”

고객님들의 폭발적인 반응!

추첨권 조기 품절 임박!

책추 과학 침대 _____

3H 지압침대

창립 5주년
사은대잔치

3H가 2억을 쏙니다!
 지압침대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만 추첨권 제공!

지압침대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만** 추천권 제공!



**인도네시아에서
한국배달 주문 예약받습니다.**

지압침대 **제네시스^{G90}**를 잡아라!

행사기간 : 6월 1일(토) ~ / 추첨일 : 8월 8일(목)

행사기간 중, 3H 지압침대 구매하신 고객
선착순 3,000분만!

추첨권 을 드립니다~

총 162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3H 지압침대 렌탈서비스 ●
매월 **200만** 루피아

* 병원용 지압침대에 한함 * 인도네시아 주문 100대 한정
* 배달설치 300만루피아 별도

34 지압침대 특징점

62개의 지압봉이 1번부터 18번까지의 척추 구간을 수직으로 지압 / 지압봉에 의한 마사지, 지압, 온열 기능 / 부분별 집중 지압 기능 (어깨, 등, 허리)

3M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 합니다

종아리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 분 / 장시간 앉거나 서서 일하시는 분 / 복부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 분 / 목, 허리가 안 좋으신 분 / 온열 지압을 받고 싶으신 분 / 수험생,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

3H 지압침대 구매 시,



3H LED 마스크 증정

* 소비자 판매가 1,580,000원 / 부가세 10% 고객 부담

Lee Eung Kyung

Lee Jin Woo

3H Smart Acupressure Bed

인도네시아 연락처

Hp. 0878-02020-333
Kakao ID : 3H333
Youtube : 3H Pijat Bed
www.3hk.co.kr

Lee Dong Gook

